

## 제65차 IAEA 정기총회 성명서

Rafael Mariano Grossi

IAEA 사무총장



의장님,  
사모아를 IAEA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IAEA 회원국은 17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속에서 2년 연속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의 안내와 방역 지침 하에 여러분을 이곳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COVID-19 유행은 우리 모두에게 동물원성 질병의 심각한 위협에 대해 진정으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IAEA 공동체가 이 끔찍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전투'를 통해 해왔던 일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응은

IAEA 역사상 가장 크고 힘든 일이었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129개국의 304개 연구소에 RT-PCR 테스트 키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COVID-19가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마지막 바이러스는 아닐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국제 사회가 반드시 더 잘 대비해야만, 그리고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러한 노력 속에서 IAEA도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계획인 '동물원성 감염증 통합 조치(ZODIAC, Zoonotic Disease Integrated Action)'는 점차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143개의 ZODIAC 국가별 코디네이터와 116개의 지정

ZODIAC 국가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 작업을 개시한 후부터 우리는 각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달 준비를 시작했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동안 모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와 상황에 있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인 기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물원성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기: 원자력 과학의 역할’이 주제인 올해 IAEA 과학 포럼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COVID-19만이 우리 회원국들이 직면한 유일한 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에 따라 IAEA는 홍수, 화산폭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 허리케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지원을 보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의 여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레바논에 팀을 파견했으며, 지난 달 지진 이후의 지원을 위해 아이티에도 팀을 파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IAEA는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146개국을 지원했는데, 그 중 35개국이 최빈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COVID-19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주요 업무 분야는 건강과 영양, 식품과 농업, 안전과 보안입니다. 역량 개발을 가능한 계속하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에서

는 상황에 따른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imPact 검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IAEA는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 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몇 차례의 국제적이고 고차원적인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통해 IAEA는 ‘플라스틱 공해 통제를 위한 Nuclear TEChnology(NUTeC Plastics)’의 가치를 내걸고 해양 환경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추적 평가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향상 위한 원자력기술의 활용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접근방식들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보장조치 이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본부와 지역사무소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안전조치 활동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장 중요한 현장 검증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회원국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장조치 협정이 발표된 국가는 현재 186개국이며, 그 중 137개국이 추가 의정서를 발표시켰습니다. 저는 포괄적 안전보장조치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당사국들에게 지체 없이 협정을 발효시킬 것을 촉구하며, 추가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아직 결론짓지 못한 국가들 또한 최대한 빨리 완료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저는 또한 예전의 표준 문서에 기반한 협정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꼭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는 15

년도 더 전에 IAEA 이사회가 인정한 안전보장 조치 체계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소량핵물질협정(SQP, Small Quantities Protocol)는 현재의 안전보장조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총회에서 저는 핵물질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가별 시스템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COMPAS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에 대한 공동 평가 결과에 따라 당국이 COMPASS 가입을 수락한 7개 시범 국가 모두에서 맞춤형 작업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종합 공동 행동계획 하에 수행되는 IAEA의 검증 및 모니터링 작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이란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른 핵 관련 약속 이행을 중단 결정으로 인해 IAEA의 검증과 사찰 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란과 양자 간 임시적으로나마 기술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란 정부는 자국의 JCPOA 관련 감시 활동과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IAEA의 지속적인 접근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의 이러한 결정은 IAEA가 향후 이란의 핵 관련 약속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재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역량 확보와 정보의 연속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저는 테헤란을 방문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IAEA 사찰관들이 사찰 활동을 수행하고, 감시 장비를 점검하며, IAEA와 이란 원자력청(AEOI,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의 보증 하에 저장 매체를 교환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사찰이 수행되어야 할 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수행 시기도 양자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에 대해 계속 보고했습니다. 이란 내 세 곳에 다수의 인공 우라늄 물질의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란 측에서 IAEA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금속 원반 형태의 천연 우라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란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동 성명에는 또한 이번 IAEA 총회와는 별개로 제가 이란의 Eslami 부통령을 만나고, 가까운 시일 내로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 측 고위 관리들과의 고위급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IAEA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오픈소스 정보를 활용하여 북한의 원자력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

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5MWe급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 운영이 감지되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저는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에 조속히 협조하며, 특히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부재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IAEA는 북한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ReNuAl2 프로젝트에 따라 Seibersdorf의 IAEA 원자력 응용 연구소의 2단계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 대응을 위한 스마트 농업, 자원 관리, 식량 안보와 인류의 건강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회원국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하에서 우리가 이 필수적인 임무를 효율적으로 주어진 예산과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는 6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인간이 대기, 바다, 육지 온난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분명

히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COP26에서 IAEA는 기후변화 영향 완화와 적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다시 말하자면 스마트 농업, 지속 가능한 토지와 물 사용 그리고 환경 등과 같은 것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COP26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IAEA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가장 높게 전망했을 때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 발전소의 계속운전과 550GW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두 가지 모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게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자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할 경우 용량 증가세를 감소시켜 결국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32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444기의 원자로를 전세계 전력의 약 10%와 전체 저탄소 전력의 1/4 이상을 공급하는 약 395G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50개국에서 19기 이상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고 완공시 53GW의 용량이 추가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가 우리 노력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IAEA 안전 기준은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자발적으로 사용되어 인류와 환경을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IAEA 핵안보 시리즈 문서를 활용하여 자국의 핵안보 체제를 수립, 유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IAEA가 회원국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전문가 안전점검과 자문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IAEA 총회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ALPS 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한 IAEA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AEA는 이 요청에 대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고, ALPS처리수 방류 전후로 일본에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최초의 개정된 협약에 따른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개정 협약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기탁자로서, 우리는 회의의 성공을 위해 지명된 공동의장 및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올해 Seibersdorf에서 공사를 시작한 IAEA 핵안보 훈련 및 시범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설은 2023년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핵물질 불법 매매, 시설의 물리적 방호, 주요 공공 행사 방호와 같은 분야에서 핵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몇몇 회원국의 너그러운 재정 지원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힙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적 필요성에 대해서라면 저

는 IAEA의 핵안보 활동을 위한 예산이 보다 지속 가능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안보라는 사안은 오늘날과 같이 추경예산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자력기술의 크나큰 혜택은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하는 역동적이며 강력한 법적 체계 안에서만 지속이 가능합니다. IAEA는 각국이 포괄적인 원자력 법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된 국제법과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IAEA는 첫 번째 국제 원자력법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자력법의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키고 분야별로 국제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게 될 국제적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5일 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 정부, UN 산하 기구, 지역 기구, 산업계,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요 글로벌 전문가들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장님,

저는 IAEA와 원자력 분야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성평등적인 인력 창출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시작했던 정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IAEA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레벨 또는 상위 분류에서 여성은 35% 정도이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을 더 웃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 퀴리 장학생 100명이 원자력분

야 석사 학위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이곳 IAEA 본부에서 인턴십을 시작하는 등 우리의 광범위한 노력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학생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110명을 모집하며, 미래의 지원자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소문을 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각국에서 저희에게 맡겨 주시는 자원을 현명하고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2022-2023년을 위한 예산에도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였고 최초로 2년 모두 실질적 증가율은 0에 기초합니다.

6월과 9월 이사회 회의의 일부 성명에 포함되었고 이번 제65차 총회에서도 검토 사항으로 제안된 IAEA 회원국 간 주권평등에 관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며, 저는 ‘기구는 모든 가입국의 주권평등의 원칙 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IAEA 협약 제4조 C항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 IAEA 협약 제6조 개정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는 각 회원들이 이사회에 선출될 자격이 있어야 하며, 각 회원국이 특정한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사회와 총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이므로 저는 회원국들이 신중한 심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들을 꾸준히 우리에게 해준 오스트리아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COVID-19 이후 지난 일년 반 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오스트리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KIIF**